

한국어 읽기 교재¹⁾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모형 제시²⁾

하채현(전주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읽기 교재 개발 절차 |
| 2. 읽기 교재 현황 | 4. 읽기 교재 개발 방향과 과제 |

1. 서론

이 글은 실제 교재 개발 사례를 토대로 읽기 교재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교재는 교수학습 자료의 중핵이다.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므로 상당히 넓은 범주의 것들이 해당한다. 이렇게 넓은 범주의 교수학습 자료 중에서 교재는 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주축이 되

-
- 1) 본고에서 다루는 읽기 교재는 '읽기 분리' 교재로 제한한다. 그러나 본고는 '분리' 교재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목에서 '한국어 읽기 분리 교재'라 하지 않고 '한국어 읽기 교재'라고 하고자 한다. 통상 한국어 '통합' 교재는 언어 기능 네 가지를 모두 포괄한 교재라는 의미로 대체로 대학 기관 교재를 말한다. 이에 따라 '통합'과 대별되는 의미로 '분리'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는 '통합'과 '분리'라는 용어가 적합한 사용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 2) 이 글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18차 학술대회(2014년 11월 15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는 틀이기에 실상은 편의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³⁾ 한국어 교육의 경우 통합 교재 형태인 대학 출판 교재를 사용한다.⁴⁾

그동안 읽기 교재에 관하여 여러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는 두 가지로 대별 되는데 읽기 교재를 구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텍스트 유형(text type)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그 중 하나다. 이종진(2009:127-151)은 연세대학교 한국어 읽기를 텍스트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텍스트 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읽기 교재를 분석한 결과 어떤 텍스트 유형은 있고 어떤 텍스트 유형은 없어서 다양한 텍스트를 읽기 교재가 갖추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우형식(2011:285-314)은 한국어 읽기 텍스트를 교재에 실을 때에 가하는 수정과 보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실제성과 단순화라 칭하여 한계와 개선점을 설명하였다. 이는 특히 초급 교재에 해당되지만 본고는 텍스트를 실제성의 기준에서 노출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텍스트 노출뿐만 아니라 수용적 측면까지 살핀 연구가 주옥파(2004:167-171)에 의해 논의되었다. 그는 읽기 관점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읽기에서 독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텍스트의 난이도가 어휘의 양과 학습자의 배경 지식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옥파는 ‘읽기’를 단순한 사실만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텍스트 내에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새로운 생각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로 하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읽기 교재에 대한 다른 논의는 기존 읽기 교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교재 모형을 제시하는 논의다. 이러한 연구는 김정숙(2006), 권성미(2007), 김해옥(2012), 장문정(2010)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정숙(2006:139-158)은 세 권의 고급 읽기 교재를 분석하고 고급 읽기 교재의 선정 방안과 활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읽기 과제 구성의 예로 보여 준 ‘학습자의 수준을

3) 엄밀히 말해서 ‘교재’와 ‘교과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교재’는 교육 재료(materials)의 줄임말로 책뿐만 아니라 수업을 위해서 활용하는 시청각 자료, 프린트물, 교사의 말, 동료의 말과 행동까지 모두 교재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재’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을 (책 형태의) ‘교과서’가 수행한다고 보고 ‘교과서’를 ‘교재’와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나정연·하재현(2014: 227) 참조

4) 대학 출판 교재인 통합 과정 읽기 교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권성미(2007)는 4급을 기준으로 교과과정과 읽기 교재 분석 요건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넘어서는 실제적 자료의 활용'은 고급 단계 읽기의 특징적 면모를 보여준다. 권성미(2007)는 읽기 교재를 교육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다. 교과 목표와 교재 개발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가 탁월하다. 다만 권성미(2007)는 대학 기관 교재에 속한 읽기 교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분리형 읽기 교재에 대한 논의와 다를 수 있다.

엄밀히 말하여 문화 교재 개발에 대한 논의인 김해옥(2012:123-145)의 논의는 문화 교재가 읽기 영역의 부분이라는 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주제별 읽기 교재를 논의할 때 한국어 문화 교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지는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다. 어디까지 읽기 학습이고 어디까지 문화 학습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⁵⁾ 여기서는 2006년 이후 문화 교재 출간 빈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문화 교재, 언어문화 교재, 문화 이론 교재의 내용과 모습을 제시하여 개발 가능한, 다양한 읽기 교재의 모습을 가늠하게 한다.

텍스트의 목적에 따른 읽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장문정(2010:414-422)의 논의는 일곱 권의 교재를 분석하여 교재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공 내용 중심적인 교재 구성은 더러 있으나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모국어 화자가 아니어도 교양 및 전공과목을 이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양 한국어 수준의 읽기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렇게 읽기 교재 개발 연구의 부진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논의를 위하여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 실상 읽기 교재는 읽기 자료의 선정과 별개가 아니다. 어떤 관점에서 읽기 자료에 접근하느냐는 곧 읽기 교재 구성의 주요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기존 교재를 분석하던 읽기 요소나 전략 혹은 텍스트 유형이나 실제성의 기준에서 분석하던 본질적인 것은 학습자에게 읽기 능력을 신장하도록 잘 안내하는 일이다. 즉 읽기를 수행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그들의 읽기 목적에 맞게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읽기 교재에서 핵심임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997년 제1회 시험이 시행된 한국어능력시험⁶⁾이 2014년 7월 전면적으로

5) 이에 대해서 김주관(2010)은 문화와 문화교육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새롭게 제기하여서 한국어 문화 학습에 대한 좋은 참조가 된다.

6) 본고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이후 '토픽(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재편되었다. 그동안 변모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⁷⁾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변화된 적은 없었다.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연구⁸⁾에 따르면 토픽(TOPIK)은 2010년 새로운 평가 유형이 개발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새로운 체제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7년만의 토픽의 대대적인 재편은 학습자 층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는 토픽의 등급별 응시자 분포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학과 취업 목적의 응시자가 늘어난 것과 실력 확인 등의 응시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지속적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는 읽기 교재 개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토픽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나 직업 목적 학습자에게 필수 항목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토픽 관련 수업을 추가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교수요목을 조정한 경우다. 이처럼 한국어 교수요목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어 학습 기관에서의 토픽 영역별 학습은 시행과 조정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여기서는 읽기 시험 대비를 가능하게 하면서 무엇보다 수업의 교재로 사용 가능할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교재의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한국어 읽기 교재 현황 검토를 통하여 읽기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개발 절차를 교수학습 모형을 토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읽기 교재 현황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의 언어 기능을 익히는 외국어 학습에서 읽기는 다른 세 가지 언어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7) 토픽은 2006년 제10회부터 6종의 문제를 3종으로 바꿨고, 제11회부터 평가 문항의 틀을 고정한 하였다. 또한 연 1회 실시하다가 2008년 연 2회, 2010년 연 4회로 시행 횟수를 확대하였다.

8) 이해영(2004)과 김정숙·최은규·김유정(2005)에서 논의된 토픽 논의들을 참조할 수 있다.

9) 김정숙(2011:9-10)의 <그림 2, 3, 4>에 의하면 토픽 등급별 응시자 분포도는 '피라미드형'에서 '중형'으로 다시 '단지형'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서 '단지형'이란 초급 응시자에 비해 중급과 고급의 응시자가 증가했다(중급 > 고급 > 초급)는 의미다. 제18회(2010년 시행, 응시자 수 36,183명)의 경우, 초급(19.8%), 중급(51.2%), 고급(38%)의 응시율을 보인다.

여겨져 왔다.¹⁰⁾ 읽기는 많은 양의 언어 입력(풍부한 어휘와 문법)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언어 습득을 용이하게 만들고 동시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학습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언어 교육에서 줄곧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읽기 능력과 독해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어 읽기 교재를 떠올리는 것은 힘든 형편이다.¹¹⁾ 다음은 ‘토픽 읽기’ 교재와 ‘한국어 독해’ 그리고 ‘한국어 읽기’ 중 중급·고급용 교재 목록이다.¹²⁾

〈표 1〉 출간된 읽기 교재 목록

연번	교재명	출판연도	특징	분류
1	(한국어뱅크) 합격의 신 New TOPIK II: 읽기, 한국어능력시험 II 중·고급(3~6급)	2014	새 유형 반영	TOPIK 읽기
2	TOPIK 유형별 한국어 읽기: 중급	2013		
3	한국어 읽기 연습	2009		
4	(한국어 능력시험) 읽기 초급/중급	2007		
5	(재미있다!) 한국어 독해	2010		한국어 독해
6	(쉽게 배우는) 한국어 독해: 중급	2009		
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독해	2007		
8	한국어독해: 중급II	2007	부산외국어대학교	
9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독해	2007	배재대학교	
10	(New)서강 한국어: 읽기 6	2014	서강대학교	한국어 읽기
11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읽기 중급 1/2	2012	연세대학교	

- 10) 이와 같은 주옥파(2004: 166)의 논지는 본고가 주장하는 바와 상통한다.
- 11) 이와 같은 생각은 한국어 교재를 다른 외국어 교재와 비교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언어 학습서 중 독해 교재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영어 학습서 중 『Reading RX Book』(one, two~six, publish: Lingua Forum)은 세대를 거쳐 영어 학습자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같은 구성이면서 다른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한국어 읽기 교재는 이와 같은 외국어 학습 교재의 출간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 12) 검색은 2014년 9월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그밖에 토픽 전 영역을 다루면서 그 중에 읽기가 포함된 책이 두 권 있다. 『TOPIK 적중특강 중급: 문법·쓰기·읽기』(성하춘, 한글파크, 2011)와 『S-TOPIK 실전문제집 한번에 패스하기: 중급·2교시, 이해 영역: 듣기·읽기』(권지영, 한글파크 랭기지플러스, 2010)이다. 그리고 한국어 읽기가 다른 영역과 묶여 나온 책으로 다음의 세 권의 책이 더 있다. ① 『(고고홍홍)한국어 중급: 읽기 말하기』(가전홍, 부산정보대학, 2009) ② 『대학한국어·2 읽기와 쓰기』(김경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③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 읽기·쓰기 1/2』(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이 해당한다.

연번	교재명	출판연도	특징	분류
12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읽기: 고급	2012	연세대학교	
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2010		
14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 5급	2009	연세대학교	
15	(연세 한국어) 읽기 1-5	2009	연세대학교	
16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	2008		
17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독해	2007	배재대학교	
18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읽기	2007	배재대학교	
19	(외국인 학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	2006		
20	(즐거운) 한국어 읽기: 3급	2005	연세대학교	
21	생각하는 한국어 읽기: 4급	2004	연세대학교	
22	즐거운 한국어 읽기: 3급	1999	연세대학교	

토픽 교재 네 권 모두 문제 유형별 교재다.¹³⁾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면 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별 학습이 비록 고득점 획득에 기여할 수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읽기 학습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읽기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은 읽기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일 뿐 실제 읽기 능력과는 별개일 수 있다. 만일 문제 유형별 읽기 교재로 공부한 학습자가 다른 유형의 시험에 응시한다면 그 읽기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얻지 못할 수 있다.¹⁴⁾ 문제 풀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읽기 시험 대비는 읽기 능력의 향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독해 교재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외국인을 위한 읽기 교재가 상당량(<표 1>에 의거, 약 23%)을 차지한다. 대체로 이와 같은 읽기는 학문목적 학습자인 유학생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이나 한국생활 등 유학생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한 주제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수업은 점점 대상 학습자의 상황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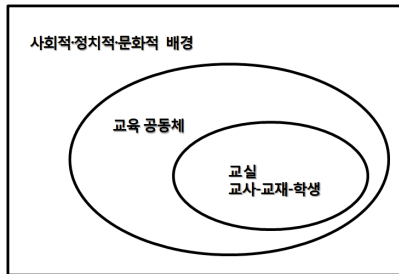
13) 토픽 읽기 교재의 경우 『(한국어뱅크) 합격의 신 New TOPIK II: 읽기』(2014)는 개편된 새로운 토픽 시험의 유형을 반영하였다.

14) 만일 토픽이 아닌 다른 시험에서의 읽기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토픽 이외에 YBM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그 밖의 사설 기관의 시험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거나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읽기 교재는 불확정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대하여 김정숙(2006: 144-146)은 ‘같은 교육과정 하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교육 분량보다 더 많은 주제를 선정하여 읽기 자료를 구성한 후 학습자의 관심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읽기 교재 개발 방안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다양한 학습자를 주요 독자로 상정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김정숙은 기존 읽기 교재의 문제점으로 ‘주제의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개발자의 책 개발 목적이 ‘고급 과정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읽기 이해 능력을 제고하고 한국 문화 이해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목적에 치중하다보니 주제의 편향성이 드러난다고 하였다.¹⁵⁾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주제로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신장하고자 한 본고의 시각과 일치한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성숙과 더불어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성의 폭이 확장 추세에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 읽기 교재 개발 절차

교수학습 자료로서 읽기 교재는 다음과 같은 위상¹⁶⁾을 지닌다.



〈그림 1〉 읽기 교재의 위상

한국어 교육의 교재는 교육 공동체의 신념보다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

15) 이러한 논의는 김정숙(2006: 144-146) 각주 1)과 2)에 다루어져 있다.

16) 아래 그림은 정혜승(2005: 339)의 <그림 1>을 수정한 것이다.

배경과 교실의 위상이 강조된다. 특히 교실 상황에 대한 강조는 극대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점차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논의가 심화되면서 바깥 층위의 위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어 읽기 교재를 <그림 1>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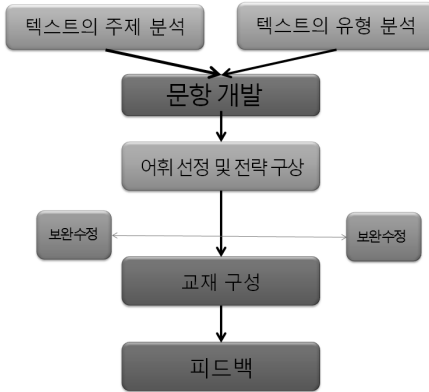
무엇보다 읽기 교재는 읽기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배경으로서의 위상을 담아야 한다. 학습자가 어휘를 안다고 해서 읽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표 언어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서 어휘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읽기 교재는 이러한 읽기 신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읽기 신념은 꼭 이론으로 정립되어 학습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에게 전달 가능한 형태의 실제적인 차원이어도 무방하다. 실제적인 차원이란 본문과 활동에서 읽기 교재의 방향성을 녹여 전달한다는 의미다. 본고에서 읽기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는 읽기 교재에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한 탐색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교재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에도 관심을 두었다. 이것은 본고의 3.3 항에서 다룰 것이다.

3.1. 기초 조사와 분석

문항을 개발하기 전 단계에 기초 조사와 분석¹⁷⁾을 실시한다. 이 절차는 읽기 교재 개발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다. 개발하고자 하는 읽기 교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픽 시험을 대비하면서 문제 유형별 교재가 아닌 독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읽기 교재. 둘째, 학문 목적 학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 셋째, 독해에 관한 지속적인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읽기 교재의 개발 절차다. 아래 논의는 그 한 예로서 중급·고급¹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읽기 교재 개발 과정에 대한 것이다.

17) 주제와 텍스트 유형 분석은 『술술 풀리는 한국어 읽기(중급·고급)』 공동 저자인 김지우와 협업하였음을 밝힌다.

18) 2014년 7월 시행인 제 34회부터 토픽은 중급과 고급을 묶어 '토픽Ⅱ'라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중급·고급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실행하고 보조적으로 새유형의 토픽을 분석에 반영하여 써. 따라서 여기서는 '토픽Ⅱ' 대신에 '중급·고급 학습자 대상'이라 칭하였다.



〈그림 2〉 교재 개발 절차

읽기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로 주제를 분석하고 텍스트 유형을 분석한다. 이에 대한 사항들과 기타 논의들에 대하여 소절로 나누어 상세히 할 것이다.

3.1.1. 주제 분석

한국어 읽기 교재는 TOPIK 문제 유형별 구성을 피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것이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주제별 읽기는 근본적인 읽기 학습이 될 수 있다.¹⁹⁾ 주제에 따른 읽기 학습에서 관건은 지문(텍스트)²⁰⁾을 선정하는 일이다. 주제는 텍스트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주제와 텍스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야 한다.

그럼 주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읽기 주제는 읽기 학습을 추동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를 구심력과 원심력²¹⁾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구심력은 읽기 학습의 기본 축인 읽기 능력 향상에 둔다. 그리고

19) 그런 까닭에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라는 제목을 가진 유형의 교재는 대부분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20) 엄밀히 말하면 ‘지문’, ‘텍스트’, ‘본문’(뒤에 있음)은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다. 본고에서 ‘지문’과 ‘텍스트’는 유사성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유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문(텍스트)’과 그에 따른 문항을 포함하여 ‘본문’이라고 일컫고자 한다. 이는 편의적인 용어 사용임을 밝힌다.

21) 구심력은 물체가 회전운동을 할 때 중심으로 쏠리는 힘을 말하고, 원심력은 회전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을 말한다.

원심력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주제들에 작동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면서(읽기 학습의 기본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포괄적인 주제들을 뽑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 자료에서 주제를 선정한다. 이는 주제에 대한 최소한의 공신력을 얻으면서 구심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관련 시험 중 토픽만큼 광범위하게 알려진 시험은 아직 없다. 그래서 읽기 지문의 주제는 토픽 초급/중급/고급 3종 문제의 시험이 시행된 10회부터 32회까지²²⁾ 중급²³⁾ 읽기 660문항 안에서 선정하였다. 분석 틀은 읽기 주제를 등급화한 연구물을 기준으로 삼는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²⁴⁾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참고한다면 읽기 학습의 원심력이 되는 주제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3〉 주제 등급화 (1), (2)

- 22) 토픽은 10회 이전까지는 모색기로 시행 기관이나 시행 방법 혹은 문제 유형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토픽 사이트에서 9회부터 기출문제 자료를 제공한다.
- 23) 범박하게 말하여 한국어 읽기 학습은 초급 논의들이 중급 학습에 대한 논의들보다 정치하고, 중급이 고급 학습에 대한 논의들보다 다듬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토픽도 초급 읽기 문항이 중급 읽기 문항보다, 중급 문항이 고급 문항보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급 문항보다는 중급 문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읽기 교재 개발에 적합하다고 본다. 때문에 중급 읽기 문항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또한 앞에서 밝혔듯이 새유형 토픽Ⅱ는 보조적으로 분석에 반영하였다.
- 24) 주제 분석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1-22쪽을, 텍스트 유형 분석은 55-58쪽을 참고하였다. 이후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은 ‘표준 모형’이라 쓴다.

위 표준 모형을 참조하여 주제를 분류하였다. 분류를 하면서 중급 수준의 주제 목록을 조정하였다. 표준 모형의 주제는 1급부터 6급까지 전체를 다루었다. 중급을 특화하려면 조정이 필요하다. 기실 완벽한 분류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분석의 지향점과 분석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층위의 주제 목록이 만들어진다.

토픽 문항이 정착기에 접어든 시기(10회, 2006년 시행)부터 최근까지 분석 하면서 읽기 분리 교재, 시험 대비 교재에 나타난 주제 범주와 끊임없이 비교 하여 조정하였다. 교재 개발자들 사이에서 주제 분석에 대하여 조정하고 다듬 어 가는 논의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2〉 주제 분석 논의 1단계

번호	구 분			
	범주 재설정	주제 통합	하위 분류 정리	주제 삭제
1	‘뉴스, 시사 문제’ 범주의 하위 분류 ‘공공장소(기관)’를 분리하여 범주 차원으로 설정한다. 토픽 읽기에 나오는 안내문 가운데 공공기관의 안내문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분리하여 대 범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표준 모형에서 제시한 범주에서 ‘과학’은 ‘전문 분야(과학)’로 이동 배치한다.	‘생활’ 범주는 하위 분류를 (괄호)안에 같이 적는다. 다만 하위 분류에 넣기 어려운 내용은 ‘생활’ 범주로만 표시한다. <예> 생활, 생활(음식, 요리), 생활(봉사) - ‘전문 분야’ 범주 역시 하위 분류를 (괄호)안에 같이 적는다. 그리고 하위 분류에 ‘동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수’, ‘인사’, ‘책과 문학’ 범주를 삭제한다. 중급에서 다루지 않을 주제다.
2	토픽 읽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음식, 봉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글과 한국어’ 범주는 ‘전문 분야(언어)’로 이동 배치한다.		
3		‘예술’ 범주의 하위 분류 ‘공연과 감상’, ‘미술’, ‘영화’와 ‘취미와 여가’ 범주의 하위 분류 ‘여가’, ‘취미’, ‘스포츠’, ‘개인적 관심사’, ‘문화생활’ ‘휴일’ 범주의 하위 분류 ‘주말’, ‘여행, 숙박’, ‘지리정보’, ‘휴일, 방학’ 등 겹치는 주제가 있어 명확하게 재 구분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를 받아들이고 상위 기준인 ‘범주’를 삭제하였다.²⁵⁾ 이와 같이, 표준 모형을 참고로 하여 주제를 분석할 때 발생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준 모형은 겹치는 주제가 많아서 통일성이 떨어진다. ‘학교생활’, ‘하루생활’,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은 교집합을 가지고 있어서 겹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표준 모형의 하위 분류가 너무 복잡해서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문화생활’과 ‘공연과 감상’이 다른 범주와 분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분이 안 된다. 셋째, 표준 모형의 하위 분류가 다시 겹치는 현상이 있어 다시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다. 예를 들면 ‘전문 분야’ 범주의 경우 모든 하위 분류가 다른 분류와 겹쳤다. 표준 모형과는 별도로 주제 분류에서 혼란을 야기한 사항은 지문의 ‘소재’를 ‘주제’로 오해하는 경우다. 토픽 문항 중 비교적 짧은 텍스트는 주제를 찾기가 어렵고 그럴 경우 소재를 주제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빈번했다. 이 점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여러 가지 중층 주제가 뽑아질 경우 그 지문마다 별도의 토론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도 정리가 안 될 경우, 여타의 한국어 읽기 교재와 영어를 비롯한 다른 외국어 읽기 교재의 주제 분류를 참조할 수 있다.²⁶⁾ 이렇게 30문항 씩 포함되어 있는 중급 읽기 660문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를 걸러 내었다.

〈표 3〉 선정 주제

번호	주제명	횟수	비율(%)
1	사회현상및제도	72	13.6
2	일상생활	61	11.6
3	심리	58	11
4	취미와 여가	55	10.4

25) 표준 모형은 단계별로 연구되고 있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제 분석과 텍스트 유형 분석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실제 분석은 표준 모형을 기준으로 하되 조정하고 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에 제시한 논의 1단계는 예시에 해당한다. 2단계, 3단계 그 후도 여러 차례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조정하고 논의한 결과, 범주를 삭제하고 하위 구분을 기준으로 고정한 것이다. 대범주와 하위 분류로 나누다 보니 복잡해서 개발자들 간의 합의의 도출하기 어렵다. 중급에 집중할 때 표준 모형에서 등급화 한 주제의 범주 구분은 효용성이 적은 편이다.

26)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 교수를 위한 읽기 교재들로 본고에 지침을 준 교재들은 다음과 같다. 『Reading Comprehension』(토익), 『iBT Reading』(토플), 『이익훈 토익 READING 중급』, 『ETS TOEIC Starter Reading』(YBM 출간), 『Hackers TOEFL Reading Intermediate』 등이다.

번호	주제명	횟수	비율(%)
5	물건	43	8.1
6	과학	33	6.3
7	건강	31	5.9
8	교육	24	4.5
9	매체	22	4.2
10	음식	21	4
11	교양·상식	20	3.8
12	직업	18	3.4
13	환경문제	15	2.8
14	습관	14	2.7
15	경제	11	2.1
16	언어	8	1.5
17	인물	8	1.5
18	봉사	5	0.9
19	정치	3	0.6
20	예술	2	0.4
계		524	99.3

위 <표 3>의 주제 중에서 1, 11, 14는 논의를 통해서 새롭게 주제의 명칭을 찾아 개발한 경우다.²⁷⁾ 권성미(2007: 157)는 교통, 역사, 요리, 교육, 남녀, 경제, 예술, 환경, 여행, 민속, 대중 문화, 가정, 개인, 여가 생활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권성미는 이를 주제와 텍스트 유형, 가독성과 실제성을 기준으로 한 4급 주제라고 하였다. 본고가 토픽을 기준으로 뽑은 주제는 권성미(2007)에서 선정한 주제와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는 여러 변수가 작동하겠지만 무엇보다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느냐 혹은 세 등급이나 두 등급으로 나누느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3.1.2. 텍스트 유형 분석

표준 모형에 따르면 텍스트 유형은 가지치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텍스트 유형은 대분류 네 가지의 수준으로 되어 있다. 1 수준: 정보전달과 이해를 위

27) 주제 분석에서 주제 교양·상식은 다른 항목과 겹쳐서 논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살펴보니 교양·상식은 통시적 관점으로 서술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물 항목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였는데 동물 관련 지문은 '환경문제' 항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한 텍스트(중분류 14, 소분류 55), 2 수준: 문화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중분류 14, 소분류 25), 3 수준: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중분류 9 소분류 39), 4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중분류 7, 소분류 28)의 7가지 형태로 압축하였다.

이러한 분류가 독해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대체로 논설문이 설명문보다, 설명문이 안내문보다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다. 설명문과 안내문이 단일 문항인 경우가 많고 논설문은 복합 문항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만일 '주제'를 키워드로 할 것이라면 텍스트 유형에 집착하지 않아도 자료 선정에 무리가 없다. 오히려 텍스트 유형에 대한 세심한 고려는 지문 선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하여 토픽 660문항을 분석하면서는 시중에 출간된 문항 유형별 토픽 교재의 범박한 텍스트 유형 분류를 따르기로 한다.

〈표 4〉 텍스트 유형 분석

번호	유형	횟수	비율(%)
1	광고문	49	9.3
2	기사문	56	10.6
3	논설문	94	17.8
4	수필·문학	43	8.1
5	설명문	181	34.3
6	안내문	83	15.7
7	표·그래프	22	4.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문(34.3%) 지문이 많고 그 다음으로 논설문(17.8%)과 안내문(15.7%) 지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운 유형의 토픽은 중급과 고급이 통합되면서 텍스트(지문)의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새 토픽에서는 논설문의 비중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텍스트 유형과 주제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정 주제에 대하여 특정 텍스트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²⁸⁾

28)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요청되며, 이 원고에서 포괄할 수 없다. 다른 원고에서 다룰 것이다. 중급 차원에서 특정 텍스트 유형과 특정 주제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1.3. 어휘

읽기와 어휘의 상관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다.²⁹⁾ 읽기의 여러 요소 중 어휘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어휘 지식은 읽기 능력의 기반이 된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80% 혹은 70%의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어휘의 난이도는 전체 읽기 능력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소가 되며 난이도의 평가 방법에는 어휘 빈도나 친근성, 단어 길이 등이 주된 기준이 될 것이다. 학습자는 자주 나타나는 고빈도 어휘, 긴 것보다 짧은 어휘를 포함하는 문장을 더 잘 읽을 수 있다고 본다.³⁰⁾ 이처럼 풍부한 어휘 능력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일반적이다. 때문에 본고는 읽기 교재에 학습이 필요한 어휘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처럼 어휘를 읽기 교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기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휘력이란 어휘를 간략하게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휘와 관련되어 연상되는 여러 가지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다.³¹⁾ 따라서 읽기 교재에 어휘 항목은 필요하되 예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어휘 기억은 간략한 기억이 아니라 연상 기억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어휘에 대한 연상 기억을 중시하며 어휘 연습은 Gass의 모델을³²⁾ 참고하여 유형화하였다.

Gass의 기본 단계는 ‘인식된 입력(apperceived input)’, 혹은 알아차리기

29) 어휘에 대한 지식과 읽기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의로는 Thondike(1973), Stanovich(2000), Carver(2003)가 있다. 제2 언어나 외국어로 된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L2 독자가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어야 하는가는 읽기의 목적과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인 읽기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글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약 2,000단어 이상을 익혀야 한다(Nation, 1990)는 주장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학문 목적(EAP:English for Academic Purpose) 학습자는 2,000 내지 3,000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익혀야 한다(Jordan, 1997)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현화 외(2009: 158-159), 허용 외(2005:161), 최연희·전은실(2006: 81-83) 참조

31) 최영환(1993: 129) 참조

32) 읽기 지문을 이용한 어휘 연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Paribakht and Wesche(1996)은 읽기 텍스트 뒤에 이어지는 어휘 연습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Gass(1988)의 입력을 통한 다섯 가지 학습 단계를 이용하였다. 이 분류는 어휘 연습을 학습이 일어날 것 같은 조건들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전후 맥락과 다른 사항 등은 Nation, I.S.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김창구 역(2012), 『I. S. P. Nation의 외국어 어휘의 교수와 학습』, 소통, 156-157) 참조

(noticing)라고 부른다. 알아차리기 조건(선택적 주의)을 이용한 어휘 연습에는 텍스트 앞부분에 주목해야 할 어휘를 배열해 놓거나 텍스트 내에 강조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주요 효과는 학습자의 의식 고양으로 단어를 다시 만났을 때 그 단어가 눈에 띠도록 하는 것이다. Gass의 두 번째 단계는 ‘이해된 입력(comprehended input)’이다. 이 단계는 수용적 회상을 향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 단어를 동의어, 정의, 혹은 그림과 연결시키는 어휘 활동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수용(intake)’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 단어를 재구조화(재배열)하기 위해 형태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목표 단어의 문법 범주를 바꾸거나 어간이나 접사를 이용하여 단어를 구축하는 활동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integrat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맥에서 의미 추론하기, 목표 단어와 연어 연결하기, 목표 단어와 동의어 연결하기, 단어 집합에서 특이한 단어 골라내기 등의 어휘 활동하게 한다. 마지막 ‘출력(output)’ 단계에서는 적절한 새로운 문맥에서 목표 단어를 재생해서 산출한다. 이 단계에서는 라벨달기 활동, 개방형 빈칸 채우기 연습, 목표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이 Gass의 이론을 토대로 본고는 어휘 학습을 다음과 같이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어휘 연습의 기본 문형>

- ① noticing: 제시어 보고 빈칸 채우기
- ② comprehended input: 반의어, 유의어 고르기
- ③ intake: 문법 요소를 이용한 단어 완성하기
- ④ integration: 연어 완성(줄긋기)하기
- ⑤ output: 공통으로 들어가는 어휘, 문장 만들기, 속담, 관용구 써 넣기

Gass의 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몇 가지 문형을 지문에 따라 선별한 후 교재에 적용한다면 학습자의 본문 학습을 도울 것이다.

3.2. 읽기 학습 모형

효과적인 읽기는 전략적 읽기다. 무턱대고 읽는다고 잘 읽을 수 없다. 여기서 어떤 ‘전략’이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학습자에

따라서 혹은 읽기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교사의 학습 지향에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읽기는 다른 과정을 지닐 수 있다. 한 마디로 학습자의 읽기 과정은 여러 가지 변수가 다방면에서 작동한다. 때문에 읽기 전략도 상황에 따라 다층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놓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략으로 본고가 상정하는 것은 ‘수용자 관점에서의 읽기’이다. 여기서 ‘수용자 관점’이라는 것은 텍스트 중심과 맥이 닿는다. ‘텍스트(text)’는 독자의 읽기 행위로서 의미를 생성한다는 뜻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호에 불과한 언어(외국어)가 언어 수용자에 의해서 의미를 지닌 텍스트가 된다.³³⁾ 이러한 읽기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코드(기호)를 텍스트화하는 과정을 중시하여 ‘텍스트 제대로 읽기’를 전략으로 구상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전략은 읽기 교재가 한 순간의 유행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항상성’을 지니며 언제나 독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읽기 전략에 대한 ‘항상성’의 충족을 강조하면서 교수학습 모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언어 교수에서 많이 활용되는 교수학습 모형³⁴⁾은 창의성 계발 모형이나 대화 중심 모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읽기 교재가 독해집이면서 동시에 읽기 시험 대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모형이 적절하다고 본다.

〈표 5〉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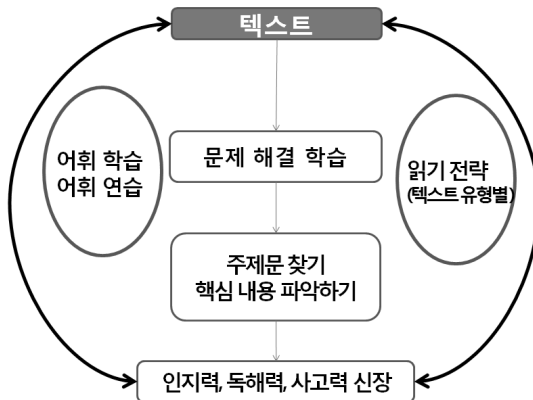
교수학습 과정	주요 활동
문제 확인하기	-문제 진단 및 확인 -가설 설정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문제 해결 방법 탐색 -학습 계획과 학습 절차 확인
문제 해결하기	-문제 해결 활동 -윌리 터득 -전략 습득 여부 확인
일반화하기	-전략의 적용과 연습 -적용상의 문제점 추출, 대안 제시 -전략의 정착 및 일반화

33) 이러한 텍스트성에 대한 주장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주창되었다. 필자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언어, 그 미지의 것』), 롤랑 바르트(『텍스트의 즐거움』)의 논의에서 시사 받았다.

34) 교수학습 모형의 상세한 유형과 설명은 최지현 외(2007)를 참조할 수 있다.

읽기 시험에서 문제³⁵⁾는 주어지는 것이다. 문항들은 지각적이고 개념적 과제이며,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이나 상황 조직 능력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가 즉시 해결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텍스트 제대로 읽기’ 전략을 위하여 텍스트 유형에 따른 읽기 전략을 구상하여 보조적으로 제시한다. 학습자가 읽어 나갈 때 텍스트 유형을 깨닫는 것은 어휘 능력만큼은 아니어도 그 다음으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만일 어떤 학습자가 뛰어난 어휘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국어로 된 내용들의 텍스트 유형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항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텍스트 유형별 읽기 전략은 텍스트 출현 빈도가 높은 설명문, 논설문, 수필·문학, 기사문 순³⁶⁾으로 제공한다.



〈그림 4〉 텍스트 주제에 따른 문제 해결 학습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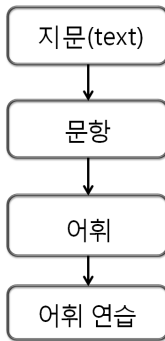
35) 문제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모형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다른 점에서 활용할 만하다. 앞으로 ‘문제(問題 Question)’를 ‘문항(問項: 문제의 항목)’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읽기 시험의 경우 하나의 지문에 여러 문제를 달거나 하나의 형태로 두 개의 문제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면이 있다. 단 교수학습 모형은 통용되는 용어인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쓴다.

36) 실제 분석에서는 안내문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읽기가 중급과 고급이 통합된 후(토픽Ⅱ: 새유형) 안내문은 기사문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기사문의 읽기 전략을 채택한다.

이는 한국어 읽기 교재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읽기 능력인 인지력, 독해력, 사고력 향상과 더불어 실용적인 목적에서 읽기 시험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읽기 교재의 모형이다.

3.3. 문항 개발과 교재 구성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 따라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그림 5〉 교재 구성 방안

정규적인 어학 수업을 위한 읽기 교재라면 절차대로 학습 목표와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학습 목표’를 한 가지로 확정할 수 없다. 읽기 교재가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한국어, 토픽 수험서, 독학, 한국 생활 적응, 한국어에 대한 취미나 향수(재외동포의 경우) 등 다양한 국면을 포괄하려면 별도의 도입이 제시되는 것은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본문부터 제시하는 이러한 구성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인 교재의 구성 단계(‘학습 목표-도입-본문-활동-보충 및 심화’)를 벗어나서 학습자의 ‘텍스트성’을 최대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습자는 본문의 주제를 알고 시작한다. 학습자는 주제를 확인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좁혀지지 않는(상당히 넓은) 스키마가 작동하는 가운데 본문 학습에 들어간다. 주제에 따른 읽기 전략은 주제 학습을 통해 사고력, 인지력, 독해력 신장을 담보한다.

지문(텍스트)은 주제에 따라서 분야별로 세 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문항

주제에 따라 지문이 선정되면 중급 이상의 어휘를 수집한다. 수집된 어휘는 그대로 주제별 어휘로 사용할 만하다. 어휘는 예문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며, 유의어와 반의어, 그리고 때에 따라서 참고 사항을 제시한다. 어휘 학습에는 어휘 연습이 포함된다. 어휘 연습은 Gass의 모델을 근거로 연습 유형을 정하고 각 지문에 필요한 어휘 연습을 선별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텍스트별 읽기 전략은 텍스트 유형의 빈도대로 배치하여 교재에 포함한다.

4. 읽기 교재 개발 방향과 과제

지금까지 한국어 읽기 교재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본고는 실제 읽기 교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읽기 교재를 개발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 사항들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처음 읽기 교재를 개발하지는 발상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읽기 자료와 읽기 교재가 부족하다는 실제적인 갈증 때문이었다. 개발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교재들을 검토하고 다른 외국어 학습서들을 접하면서 한국어 읽기 교재의 전반적인 부진을 실제로 절감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읽기 교재 개발을 위하여 이미 출간된 읽기 교재의 현황을 검토하고 주제와 텍스트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제대로 읽기’를 읽기 전략으로 내세웠다. 또한 읽기 학습에서 어휘 능력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텍스트는 표준 모형을 기준으로 주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효과적인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안한 모형을 가지고 읽기 교재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사례는 학습자의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는 구심력과 폭넓은 주제를 갖추려는 원심력을 작동시킨 것이다.

읽기는 외국어 학습에서 기본에 충실한 경우에만 터득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학습자에게 좋은 지문을 많이 읽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지문을 통한 읽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에서 표명하는 결론적인 입장이다. 다양한 주제의 읽기는 학습자의 인지력, 독해력, 사고력을 신장하며, 어떤 형태의 읽기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읽기를 추동하는 교재가 각 분야마다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와 같은 본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될 때 더 잘 드러날 것이다. 우선 본고는 선행 연구와 기초 조사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읽기 교재의 전략과 모형을 제안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 중 이러한 주제별 읽기 학습의 '실행(performance)'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많지 않다. 이 점은 본고의 후속 과제가 될 것이다. 그밖에 본고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해결되지 않은 점들을 발견하였다. 주제와 텍스트 유형과의 상관관계 규명,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어 교재의 위상에 대한 논의, 어휘 학습의 순차적 진행에 대한 논의, 통합과 분리라는 용어 사용 문제 등이 이론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 또한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 강현화 외(2009), 『한국어 이해교육론』, 형설출판사, 158-159면.
- 권성미(2007), 『한국어 읽기 교재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개발-4급 읽기 교재의 구성 요건 고찰을 통한 연구』, 『언어와 문화』 3-1.
- 김정숙(2006), 『고급 단계 한국어 읽기 자료 개발 방안』,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 김정숙(2011), 『시행 결과를 통해 본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 양상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 김정숙·최은규·김유정(2005),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연구(1)-등급 부여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주관(2010), 『문화의 개념과 문화교육-언어교육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화』 6-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해옥(2012), 『한국 문화 교육 교재 개발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8-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나정연·하채현(2014), 『『조선어독본』을 통해서 본 문학교육』, 『영주어문』 28, 영주어문학회.
- 우형식(2011), 『한국어 읽기 텍스트의 실제성과 단순화에 대한 반성적 접근』,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 이중진(2009), 『한국어 읽기 교재의 텍스트 구성 방안』, 『이중언어학』 40, 이중언어학회.
- 이혜영(2004), 『“국어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어능력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 장문정(2010),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 구성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정혜승(2005), 『미국의 국어교과서 분석 연구』, 『독서연구』 14, 한국독서학회.
- 주옥파(2004),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연희·전은실(2006), 『영어 읽기 교육론: 원리와 적용』, 한국문화사, 81-83면.
- 최영환(1993), 『읽기 교육에서 어휘 지도의 위상: 서론』, 『한국어교육학회논문집』 50권, 한국어교육학회.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161쪽.
- Barthes, Roland(1973/1978), *Le Plaisir du texte/Leçon*, Edition du Seuil(김희영 옮김(1997),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 Kristeva, Julia(1981), *LE LANGAGE, CET INCONNU*, Edition du Seuil(김인환·이수미 옮김(1997), 『언어, 그 미지의 것』, 민음사).
- Nation, I.S.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김창구 옮김(2012), 『I. S. P. Nation의 외국어 어휘의 교수와 학습』, 소통).

■ 기본 자료: 한국어 읽기 교재

- 『(한국어뱅크) 합격의 신 New TOPIK II: 읽기 : 한국어능력시험 II 중·고급(3~6급)』 (2014)
- 『TOPIK 유형별 한국어 읽기: 중급』 (2013)
- 『한국어 읽기 연습』 (2009)
- 『한국어 능력시험 읽기 초급/중급』 (2007)
- 『(재미있다!) 한국어 독해』 (2010)
- 『(쉽게 배우는) 한국어 독해: 중급』 (2009)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독해』 (2007)
- 『한국어독해 :중급II』 (2007)
-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독해』 (2007)
- 『(New)서강 한국어 :읽기 6』 (2014)
-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읽기 중급 1/2』 (2012)
-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읽기: 고급』 (2012)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2010)
-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 5급』 (2009)
- 『(연세 한국어) 읽기 1-5』 (2009)

-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 (2008)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독해』 (2007)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읽기』 (2007)
『(외국인 학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 (2006)
『(즐거운) 한국어 읽기: 3급』 (2005)
『생각하는 한국어 읽기: 4급』 (2004)
『즐거운 한국어 읽기: 3급』 (1999)
『*Reading RX Book*』, one, two-six, publish: Lingua Forum (2004)

【국문초록】

이 글은 실제 교재 개발 사례를 토대로 읽기 교재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한국어 읽기 교재 현황을 검토하여 읽기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 다음, 기존 토픽 문항 분석을 통하여 주제에 따른 ‘텍스트 제대로 읽기’를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텍스트성을 살리는 읽기 전략이다. 또한 읽기 학습에서 어휘 능력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토픽의 지문들은 표준 모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래서 효과적인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형은 학습자의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신장하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고 교재를 구성하는 방법의 예시를 보여 주었다. 이로써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방향을 가늠하게 하고 교재 개발 구성을 위한 논점을 제공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한국어, 읽기 교재, 모형, 주제별, 읽기 전략, 텍스트, 토픽

【Abstracts】

Model Proposed and Basic Research for Development of the Korean Reading Books

Ha, ChaeHyu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the actual teaching practice model based on example of a reading textbook development. The first, it emphasizes the need to read and review books into Korean reading materials development. And then, we set up as a reading strategy to read through the thematic to analysis with TOPIK item. 'Text read properly' is the reading strategy of extending the text of the learner. In addition, we review the theory of vocabulary skills in learning to read. TOPIK of the text are analyzed based on the standard model. So the proposed model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to read. This model is to be stretching the basic reading of learners. As a result, the proposed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following a reading strategy, and showed an example of how to configure the book.

Key words : Korean, reading books, model, thematic, reading strategy, text, TOPIK

이 논문은 2015년 1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